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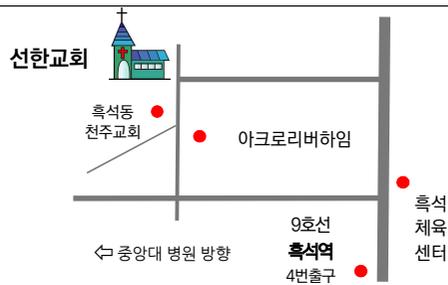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성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인혁	국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력 교회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은 퇴 장 로	김 대 희, 박 희 태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조 윤 익, 고 상 돈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조 계 승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5장 (통일찬송가 55장)	
교 독 문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찬 양 과 경 배	542장 (통일찬송가 340장)	
예 배 기 도	고상돈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27장 1절 ~ 26절	
설 교	로마로 가는 길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요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신영문 집사		
영 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선 교 보 고	구영서 선교위원장		
간 증	최성규, 심재희		
특 송	단기선교팀 '꽃들도'		
말 씬	단기선교의 기쁨(눅10:17-20)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복음이란? (롬1:1-4)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오늘 오후예배는 단기선교 보고예배로 드립니다.
- 선 한 행 전 발 간** 제 11차 선한행전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별로 한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인 소 식** 한배선 장로님의 부친께서 17일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8월 19일 오전 8시
장례식장 : 함열 백제 장례식장 1층 2호실

8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8월 4일	전교인 수련회			다 함 께		
8월 11일	성경오류논쟁 4강			임춘배 목사		
8월 18일	단기선교 보고예배			단기선교팀		
8월 25일	성경오류논쟁 5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8/18	8/19	8/20	8/21	8/22	8/23	8/24
	아가 2장	아가 3장	아가 4장	아가 5장	아가 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가정예배] 온전한 이야기에 머물라

찬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통 470장)

본문 : 누가복음 13장 31~35절

말씀 : 오늘도 '온전한 이야기'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온전한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온전한 이야기로 들어오라'는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류 구원의 드라마는 재림 때 있을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되며,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로 초청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전한 이야기 안에 머물라'입니다. 들어왔으면 나가지 않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31절을 보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고 합니다. 헤롯은 잔악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생일날 딸의 요청대로 투옥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선물한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32절)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했을까요.

TV에서 동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종종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우는 사자 무리가 사냥에 성공해 먹이를 먹을 때 근처를 서성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여우에게 먹이를 뺏길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신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여우가 기다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무리는 주변을 맴도는 여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한 건 사자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 헤롯은 폭력의 칼자루를 쥔 위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헤롯은 여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라는 가장 거대한 먹이를 사냥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헤롯이 있습니다. 한 둘이 아니라 여럿입니다. 헤롯은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걸 방해합니다. 자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헤롯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여우로 치부합니까. 아니면 여우를 본 토끼처럼 겁을 먹고 숨습니까. 여러분의 헤롯은 '사자의 여우'입니까, '토끼의 여우'입니까.

시편 55편 22~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많은 헤롯에게 시달렸지만 끝까지 주님께 머물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자녀이므로 이런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 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야기 안에 끝까지 머무르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로마로 가는 길 (행 27:1-26)
서론	바울은 이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본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로마 호송 과정에 일어난 일<ol style="list-style-type: none">(1) 총독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를 호송책임자로 세움(2)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뭇데노'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 미항에 도착(3)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뱃속으로 가던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4) 풍랑을 이기려는 온갖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배는 포류하게 되고 바울의 말대로 안전하게 14일만에 작은 섬에 도착함2. 교훈<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선택'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2)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길이다.(3)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잘 결정하자.
결론	인생의 풍랑속에서도 바른 신앙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고상돈 장로	조계승 장로
헌금 위원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오후예배 기도	신영문 집사	허정미 집사

찬양	주 믿는 형제들 (찬송가 221장 / 통일 찬송가 525장)
통독	아가 2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전자에 이어 두 여인들의 서로를 향한 열망과 칭찬이 강렬해지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짐을 보여 주고 있다. 푸른 침상 위에 앉아서 사랑의 밀어붙 속삭이던 여인들은 처음 만났던 당시의 정경을 회상하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발전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 준다. 성도는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음미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순결하고 긴밀한 애정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랑의 성숙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본장은 두 연인들의 상호 사랑의 찬사를 언급하고 있는 전반부(1-7절)와 두 연인의 만남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중반부(8-15절), 그리고 님을 그리는 솔라미 여인의 독백을 기술한 후반부(16-17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혼인약속</p> <p>(1) 1-7절: 1:12절-2:7절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교창’형식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을 고백함. 서로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염원하는 애뜻한 심정을 표출함</p> <p>(2) 8-17절: 솔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재회, 솔로몬의 청혼, 청혼을 수락하는 솔라미 여인의 노래,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솔라미 여인의 설레임을 표현함</p> <p>(3) 모든 사랑에는 위기가 있다. 사랑의 위기는 대부분 작은 위험 신호들을 소홀하게 여겼기에 생겨나므로 그 위험 신호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p>
핵심 단어	<p>5절. 병. 솔로몬이 솔라미 여인을 사모하여 생긴 상사병을 의미한다.</p> <p>7절. 흔들지. 비교적 소규모의 흔들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조금도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 준다.</p> <p>9절. 벽. 집 자체의 벽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궁중 내부에서 왕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나 무엇과도 /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통 427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웨퍼 박사를 기억합니다. 웨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이상스러웠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이랬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웨퍼 박사의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레위기 7:11~27
목상포인트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기쁨의 식사에도 반드시 거룩함으로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그 제물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19~21절)
적용하기	부정함과 거룩함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의 유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말씀에든 겸손히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사랑을 회복함	날짜 : 8월 23일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 통일 찬송가 434장)		
통독	아가 6장		
본문 내용	<p>솔로몬과 솔라미 여인의 사랑은 정지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랑을 형성해 나간다. 본장은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는 본서의 마지막 부분의 도입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과 함께 신부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드러난다. 이같이 시련을 극복한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는 본장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과 솔라미 여인의 대답이 들어 있는 부분(1-3절), 신부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 감각적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4-9절), 신부의 탁월함에 대한 여인들의 합창이 들어 있는 부분(10절), 신부의 독백이 이루어지는 부분(11-12절), 신부의 춤 솜씨를 구경하고자 희망하는 부분(13-14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라미 여인은 오직 신랑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위치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의 은혜로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영적 교훈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p>		
생각해보기			
1	<p>사랑의 성숙과 확장</p> <p>(1) 1-14절: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전반부(1-10절)와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노래하는 후반부로 구성됨</p> <p>(2) 사랑을 회복하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과 배우자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고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해야 한다.</p>		
핵심 단어	<p>6절. 쌍태를 낳은 양. 솔라미 여인의 이를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에 비유한 것은 아4:2에서도 언급되었다.</p> <p>7절. 석류 한 쪽. 솔로몬 왕이 솔라미 여인의 뺨을 석류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볼이 홍조를 띠어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묘사하는 것이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랑	날짜 : 8월 20일
찬양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 / 통일 찬송가 30장)		
통독	아가서 3장		
본문 내용	<p>본장에서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본장은 구애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 부분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마지막 진통을 겪으면서 화려한 결혼으로 이어졌고, 앞으로는 시련을 통해 더욱 온전한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두여인의 지극한 사랑과 즐거운 결합이 드러나고 있는 본장은 꿈속에서도 솔로몬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솔라미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전반부(1-5절)와, 신랑, 신부 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후반부(6-11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결혼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 됨을 추구하게 된다. 사랑은 단순히 관념적인 영역에서의 하나 됨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도 합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합일되어야 한다.</p>		
생각해보기			
1	<p>사랑의 위기와 회복</p> <p>(1) 1-5절: 솔라미 여인이 꿈속에서조차 신랑될 솔로몬을 찾아 헤멜 정도로 그에 대하여 간절하고도 정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노래함</p> <p>(2) 6-11절: 마침내 온 세상의 축복 속에 올리게 된 결혼식의 장엄하고도 즐거운 정경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을 빌어 묘사함. 먼저 결혼식을 위해 용사들에 둘러싸여 왕궁을 향하여 나아오는 위엄있고 영광스런 신부의 행렬. 이어 신랑 솔로몬의 면류관을 쓴 위엄있는 자태가 묘사됨.</p> <p>(3) 재림때에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실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그 영광과 감격을 기대하며 이 환난의 밤에 깨어서 성결한 신부로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p>		
핵심 단어	<p>5절. 부탁한다. 원어는 '맹세하다, 타원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부탁을 말한다.</p> <p>6절. 연기 기둥.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이 솔라미 여인의 가마 행렬을 보고 말한 것이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219장 / 통일 찬송가 279장)
통독	아가 4장
본문 내용	본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찬미송이라고 볼 수 있다. 솔로몬은 결혼식이 거행된 시점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궁중 앞에서 극찬하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저자는 직유법과 은유법을 주로 사용하여 신부의 자연미를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5절), 자신이 신부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후반부(6-16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랑의 극진한 사랑과 신부의 순결함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부부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적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육체적 결합이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녀의 완벽한 외모는 마음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생각해보기	
1	신랑의 찬사와 신부의 화답 (1) 1-6절: 혼인 예식을 마친후 신랑이 결혼식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에게 보내는 찬사와 이러한 신랑의 칭찬에 형용할수 없는 기쁨을 느끼면서도 수줍음을 드러내는 신부의 노래 (2) 7-16절: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을 기록함 (3) 아내가 사랑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수 있는 대상은 오직 그녀의 남편뿐 이듯 성도가 사랑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야 할 대상은 오직 그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뿐이다.
핵심 단어	7절. 흠이 없구나. 결합이 없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흠이 없어야 했다. 8절. 스닐. 문자적으로 '흰 산'이란 뜻으로서 '헤르몬 산'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인데, 이 산은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고대 가나안 거민들은 거룩한 산으로 여겼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 통일 찬송가 330장)
통독	아가 5장
본문 내용	본장에 이르러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후에 신혼 생활의 단꿈에 젖어 사랑의 밀어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얼마 후에 시련을 당하게 된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확신한 나머지 잠시 나태와 안일에 빠져 신랑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부는 두번째 꿈을 꾸게된다. 그런데 첫번째 꿈이 밝고 즐겁게 끝난 데 비하여 이번의 꿈은 고통과 놀라움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각성한 신부는 다시금 신랑의 훌륭함을 확인하고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 초기의 불붙는 열정을 상실하지 않고 항상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장은 결혼 잔치에 친구를 초청하는 부분(1절), 두 번째 꿈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시련이 부각된 부분(2-9절), 사랑하는 남편의 탁월함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신부의 사랑이 제시되는 부분(10-16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시련은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생각해보기	
1	결혼 초기에 임한 갈등 (1) 1-16절: 혼인후 신혼 초기에 두 사람간의 일시적 갈등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고 더욱 더 성숙된 사랑으로 승화해가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기쁨이 솔람미 여인 혈육들에게까지 확장된 사실을 기록함 (2) 인격적으로 결코 완전한 존재일수 없는 인간 남녀의 사랑의 과정 속에서 는 갈등과 오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할 것만을 요구할 때 심각한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희생적인 배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볼 때 신랑의 진실한 사랑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필경 불행하게 된다. 성도는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수 있다.
핵심 단어	4절. 동하여서. 문자적으로 '크게 외치다, 소동하다, 떨리다' 등 불안정, 소요, 강한 느낌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7절. 행순하는 자들. 행순하는 자들이란 밤에 순찰하면서 성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야경꾼들을 가리킨다. 9절. 극히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극찬함을 묘사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